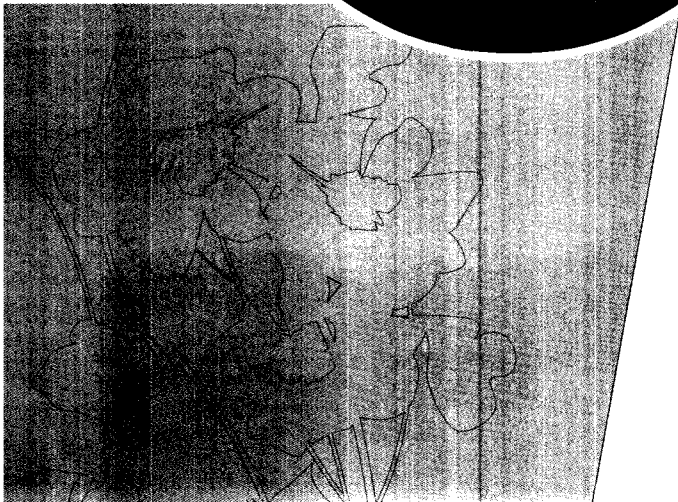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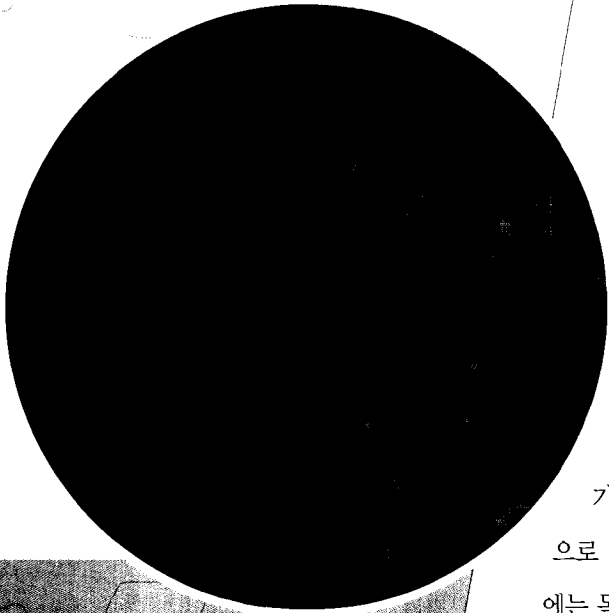


철쭉꽃 이야기

진달래과(Ericaceae)에 속하는 낙엽 관목



철쭉은 대자두견화(大字杜鵑花), 신두견(新杜鵑), 척축, 산척축, 철쭉꽃, 철쭉나무, 철죽, 철죽나무, 개꽃나무라고도 한다.

높이 2~5m이고 어린 가지에 선모(腺毛)가 있으나 점차 없어진다.

잎은 길이가 5~10cm 정도로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서는 돌려난 것 같이 보이고 거꾸로 선 달걀 모양으로 끝은 둥글거나 다소 파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의 표면은 녹색으로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차츰 없어지며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잎맥 위에 털이 있다. 꽃은 지름이 5~8cm 정도로 연분홍빛 꽃잎이 다섯 갈래로 갈라져 나며 아랫부분이 함께 붙은 통꽃이다. 한 개의 암술과 열 개의 수술이 갈고리처럼 한 방향으로 휘어지며 꽃잎보다 길다.

꽃잎의 안쪽에 자줏빛 선명한 반점이 주근깨처럼 난다. 가지는 어릴 때는 녹색이었다가 점점 회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삭과(殼果)로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고 길이 1.5cm 정도로 선모가 있으며 10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철쭉의 꽃은 5월 무렵 3~7개씩 가지 끝에 피는데 향기가 풍부하다. 잎도 꽃이 피면서 같이 자란다. 잎이 진한 초록으로 변할 무렵에 꽃이 지며 통꽃잎이 그대로 떨어진다. 철쭉꽃에는 독성이 있고 꽃받침 주변에서 끈끈한 점액이 묻어나 벌레가 붙지 못한다.

학명으로는 로도덴드론 슈리펜바키(Rhododendron schlippenbachii)라고 하는 데 슈리펜바키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이 꽃을 처음 발견하여 서방에 소개한 러시아 해군장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Flower Story



현재 관상수로 많이 심는 철쭉 종류에는 일본 품종이 많다. 과거에도 일본 철쭉이 들어온 기록이 있다. 1441년(세종 23) 세종대왕에게 일본 철쭉을 진상하였다고 하고 강희안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꽃나무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왜홍철쭉을 이품에 두었고 우리나라 진달래인 홍두견을 육품이라 하였다.

철쭉은 약용 식물로 앓을 강장제, 이노제, 건위제로 쓰기도 한다. 조각재로도 쓰이고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철쭉제는 본래 새 계절을 맞으며 산신령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인데 최근 지역 축제로 각광 받고 있으며, 그 중 태백산과 지리산, 소백산에서 개최되는 철쭉제가 유명하다. ▲▲

